

다. 유공이 존속하고 유공 경영층의 환경보전의지가 확고한 이상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유공은 앞으로도 계속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계의 협조를 부탁한다.

첫째로 환경투자자금의 지속확대로 환경투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증대를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설비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노력정도에 따라 자율, 제도, 강제등과 같이 규제와 관리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목표의식이 분명해 지도록 유도하는 차

등관리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투자에 의한 원가부담을 기술개발, 관리혁신 등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술향상과 고유기술확보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기업이 실행가능한 것과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선별해서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투자예산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요구나 흑백논리는 지양되어야 하며, 냉철한 판단으로 단계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각계가 2,000년대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공동의 노력과 협의를 통하여 제시, 정립하고 이를 바

탕으로 균형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이같은 국내관계법, 지역의 조례, 협약 등과 같은 국가나 사회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요구에 일차적으로 부응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의무이고 사명이다. 그러나 지구환경을 무역의 장벽으로 구축하려는 국제적 추세와 환경이 우선하는 정책의 시대가 멀지 않았고, 환경보전이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고 그 이미지의 호감이 판매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적합한 환경관리를 하는 보수적이고 방어적 환경관리에서 진일보하여 선도적환경관리를 기업의 기본방침으로 선언하여야 옳다고 본다. ♠

정유사가 개최한 환경심포지움

- 유공울산 컴플렉스 안전환경부 환경1과 -

지난 5월 21일 유공컴플렉스에서 「2000년대 울산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분담」이란 주제를 가지고 환경심포지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유공의 2004년까지

시행해야 할 3단계 5개년 환경사업 투자계획중 그 1단계 사업인 종합폐수처리장 및 소각로 완공기념 행사라는 명목으로 실시되었으나 향후 환경사업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본 행사 실시에 대해서 유공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많았다. 즉 지금 시운전 상태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공연히 일만 벌여서 나중에 자승자박하는 꼴이 아닌가? 또는 왜 우리가 이런것을 주관해야 하느냐는 거부적 시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시민, 정부, 학계, 기업이 솔직하게 환경이란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

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며, 질의 응답시간에는 예상외로 열띤 토론이 전개된 것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진솔하게 나눌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다만 이번 행사를 마치면서 환경시설 관리자로서 각계에 대해서 바램이 있다면 우선 정부는 경제와 환경이란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똑바로 굴러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환경정책을 수립 제시하여 각 기업체가 계획적, 지속적으로 환경시설 투자를 해갈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환경기술 및 설비를 중점개발하여 싸고도 효과적인 환경설비가 제공될수 있었으면 어떨까. 또한 기업은 비록 생산과정에서 어쩔수없이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진짜로 진지하게 연구하고, 최소한 환경관리 상태를 누구에게라도 보여 줄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

나아가서 내가 만든것(오염물)은 내가 거두어 들인다는 차원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은 좀더 합리적, 객관적 시각으로 기업 활동을 평가하고 또한 스스로 환경보전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즉 환경오염을 다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고발하는 한편 잘하고 노력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좋지

만 반대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또한 환경파괴는 생산에서만 아니라 최종소비 단계에서도 똑같이 발생된다는 것을 좀더 자각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모든 것들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주변의 작은 쓰레기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성장하였고, 그만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질수 있지만 또 한편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등장 하였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부터 울산은 환경개선 및 보전의 기수로서 등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이번 심포지움이 그러한 활동을 위한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누가 주체가 되든 - 이번



그리고 언론이나 학계는 정부, 기업,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정책, 의견, 활동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조언하고, 유도했으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번 심포지움 행사를 마치면서 두서없이 떠올랐던 바램들이었다.

한때 경제개발의 기수로서 울산이 공업도시로 출발한 이래 이제 명실공히 한국제일의 공업도시로

에는 유공울산 콤플렉스가 주체가 하였고 다음에는 유공 전사적 행사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지만- 국민, 정부, 기업, 학계, 언론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의견이 교환되고 현실적인 좋은 대책들이 나올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아니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